항해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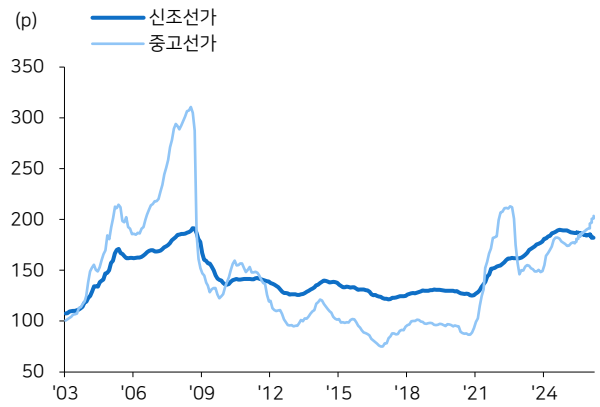
meritz 메리츠증권

2026. 3. 31 (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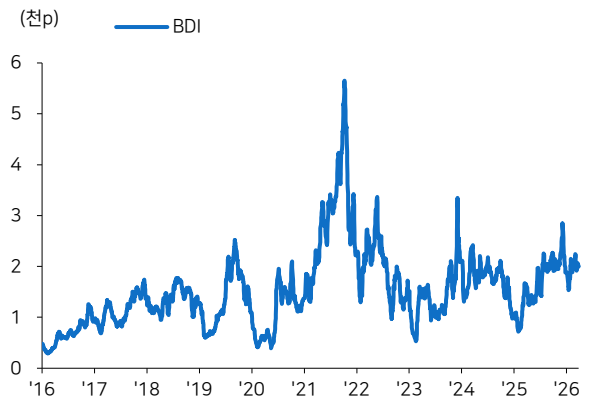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2.1p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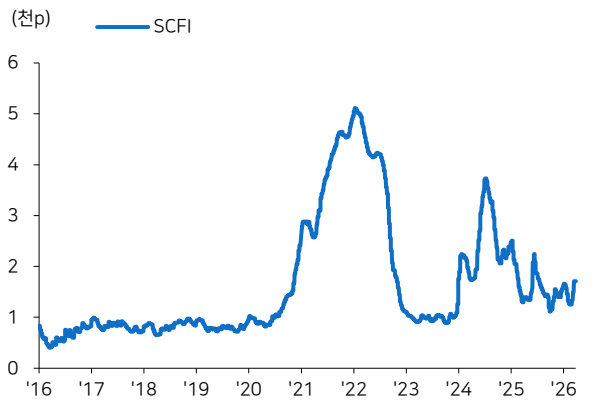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90.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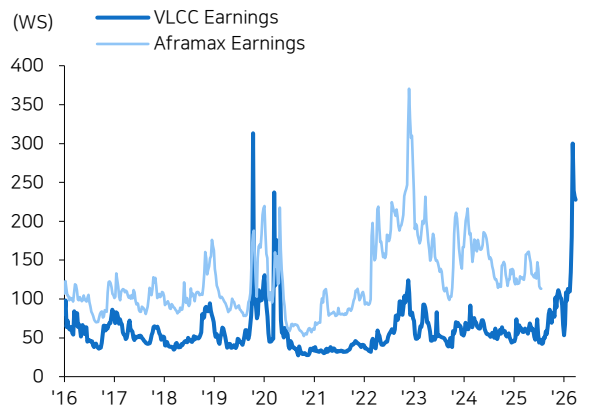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031.0p (+17.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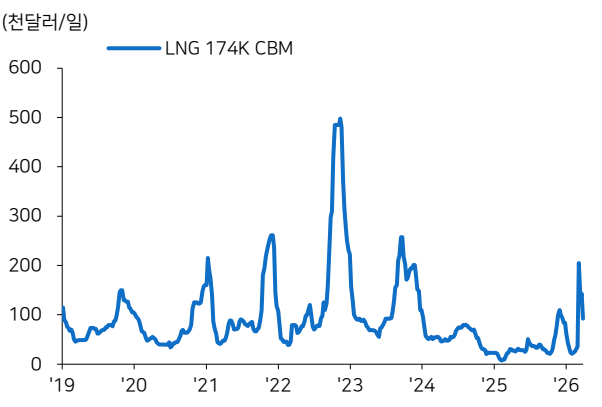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826.8p (+120.3p WoW)



VLCC Spot Rate 227.5WS (-4.1p WoW)



LNG Spot 운임 92.5천달러 (-50.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화 필리조선소, 美해군 계약 첫 수주...차세대 군수함 개발 참여 (머니투데이) https://zrr.kr/Zh5sG2

한화디펜스USA와 한화오션의 필리조선소가 미국 선박 설계 전문 기업인 Vard Marine US의 하청업체로서 미 해군의 차세대 군수 지원함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인수 후 첫 미 해군 프로젝트 수주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이번 수주는 한화그룹이 2024년 12월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이후 거둔 첫 결실로, 한화는 인수 이후 인력 및 시설 확충을 위해 2억 달러(약 3,500억 원) 이상의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해 왔다고 전해짐. 특히 이번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한화의 미국 내 방산 법인인 한화디펜스USA와 필리조선소 간의 시너지가 본격화되었으며, 향후 미 해군 함정 건조 및 MRO(유지 · 보수 · 정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알려짐.

한화오션·HD 현대중, 캐나다 사절단 만난다...잠수함 수주전 승기 잡나 (한국경제) https://zrr.kr/DA2O4h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약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위해 방한 중인 캐나다 무역사절단과 연쇄 회동을 갖고 '팀코리아' 차원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됨. 이번 무역사절단은 성남 HD현대 R&D 센터 방문 및 한화그룹과의 별도 면담 등을 통해 한국의 방산 · 에너지 · ICT 역량을 점검할 예정이며, 6월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한국 정부와 현대차 · 대한항공 등 민간 기업들이 절충교역 측면에서 전방위 지원 사격에 나선다고 전해짐. 특히 경쟁 상대인 독일 TKMS의 '산업 패키지' 전략이 핵심 파트너인 폭스바겐의 투자 연계 거부로 차질을 빚으면서 한국의 수주 기대감이 높아졌으며, 국내 기업들은 현지 기업 5곳과의 파트너십 체결 등을 통해 캐나다 정부가 중시하는 '산업 · 경제적 기여도'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고 알려짐.

Woodside resumes loading at Australian LNG project (Upstream) https://zrr.kr/yvqBBf

Woodside Energy가 호주 서부를 강타한 사이클론 '나렐(Narelle)'의 영향으로 중단되었던 Pluto LNG 프로젝트의 선적을 재개했다고 보도됨. 나렐이 열대저압부로 약화되고 Dampier 항구가 재개방됨에 따라, Woodside Energy는 Karratha 가스 플랜트의 인력을 복귀시키는 등 생산 정상화에 착수했으며 Macedon 및 플루토 시설을 통해 서호주 국내 가스 공급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해짐. Santos와 Chevron 등 인근 설비들이 여전히 피해 복구 중인 상황에서 Woodside Energy는 연내 가동을 목표로 하는 Scarborough 가스 프로젝트의 2단계 건설도 병행하고 있다고 알려짐.

US LNG terminal delayed by contractor bankruptcy reaches first production (Upstream) https://zrr.kr/Z1sPqp

QatarEnergy와 ExxonMobil의 합작 법인인 Golden Pass LNG가 미국 텍사스주 Sabine Pass 시설의 제1 액화 트레인에서 첫 LNG 생산에 성공했다고 보도됨. 연간 1,800만 톤 생산 규모를 목표로 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과거 주계약업체였던 Zachry Group의 파산으로 차질을 빚었으나, 이후 조율을 거쳐 정상 궤도에 진입했으며 올해 2분기 중 본격적인 수출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해짐. 사드 셰리다 알 카비 카타르에너지 CEO는 이번 성과가 글로벌 에너지 안보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뤄진 핵심 이정표임을 강조했으며, 이번 시설 가동을 통해 미국 내 에너지 생산 강화 및 전 세계적인 청정 에너지 수요 대응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한화오션, 셰브론 레바이탄 가스전 모듈 제작 사업 착수 (더구루) https://zrr.kr/JJ4aUX

한화오션이 이스라엘 Leviathan 해상 가스전 확장 프로젝트의 핵심 설비인 모듈 제작을 위한 스틸 컷팅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정에 착수했다고 보도됨. 해당 프로젝트는 이스라엘 해상 가스전의 연간 생산 능력을 기존 120억㎥에서 210억㎥ 규모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화오션은 가스 처리 및 제어 설비 등이 포함된 주요 모듈을 육상에서 제작해 2028년 이후 해상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짐. 특히 한화오션은 지난 2024년부터 초기 엔지니어링 단계에 참여해 온 기술 신뢰를 바탕으로 수주 한 달 만에 실제 제작에 돌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알려짐.

'호르무즈 리스크' 뚫고 LNG선 릴레이 수주..."발주처 다변화 좋아" (머니투데이) https://zrr.kr/qbp6qq

미-이란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북미 중심의 LNG 프로젝트 확장세가 중동발 리스크를 상쇄하며 한국 조선업계의 LNG 운반선 수주 릴레이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도됨.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이후 우려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최근 일주일 사이 약 1.9조 원 규모의 LNG선 수주를 발표했으며, 에너지 안보를 위해 미국 텍사스 · 캘리포니아 등 비중동 지역 프로젝트로 발주처가 다변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해짐. 단기적으로는 카타르향 수주 잔고(약 64척)의 인도 지연에 따른 현금 흐름 악화 우려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신규 계약 체결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